

[실무 수습기-국회]

## 새로운 경험의 연속

- 1979년 10월 생
- 여수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前)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생



기 미 진

### I. 들어가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고, 막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듯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2000명의 동기들과 로스쿨 1기생이라는 명찰을 단지 어 언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이 남은 것 같은 데도, 나는 어엿한 로스쿨 3년차가 되어 당장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이제는 학교생활의 마무리와 법조인으로서의 향후 진로모색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걸 음 먼저 입학한 죄(?)로, 1기생인 나와 내 동기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후배들에

게 무언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선구자와 같은 의지와 압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실무수습기관 것은 비단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오는 후배들과 그리고 세상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미래 법조인의 모습을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II. 국회를 선택하다

법조인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正道’라는 것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예전 사법시험만이 존재하던 시절부터 현재 로스쿨세대까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은 하나로 통했다. 물론 일련의 司法만이 법조인이 가야할 길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선택한 ‘국회’는 생뚱맞은 길, 정답이 아닌 길, 기존의 법조인이 마땅히 가야할 正道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나의 얕은 식견으로는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고 법을 알고 사용한다는 것은 사법만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법이 함께 숨 쉬고 공존하는 것을 직접 보고 익히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국회는 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한 나에게 제일 먼저 가보아야 할 곳, 법이 법원에서 성장하기 이전에 그 근원과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한번 가 보아야 할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이번 선택에 어려움은 없었다.

## III. 국회를 알다(국회실무수습 1주차)

2010년 여름, 무엇이든 로스쿨 1기생에게는 ‘처음’이라는 설레고도 두려운 수석이 붙듯이 나의 국회실무수습은 나에게도 국회입장에서도 처음이었다. 실무수습은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총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충북대 로스쿨 70명 동기중에서 단 둘만이 간택(?)되어 부푼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선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햇빛은 따사롭고 녹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웅웅대는 매미소리가 귀가 아프도록 가득한 국회 안을 걸어가며-비록 정문이 아닌 국회도서관쪽으로 난 작은 입구를 통해 들어갔지만-웬지 내 가슴이 뿌듯해지고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가 연수를 받을 곳은 국회의정관이었는데 국회도서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었다. 첫날은 입교식 및 과장안내가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각 좌석에 법서만한 크기의 교재(?)와 우리만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관련 일정표와 각 학교에서 온 학생들의 명단이 담긴 소책자, 국회

로고가 새겨진 기념볼펜이 우리를 반겼다. 살펴보니 1주차에는 각종 국회업무와 관련된 강의가 주를 이루고 2주차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부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짜여있었다. 첫시간에는 간략한 자기소개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어울리지 않게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 관계로 맘껏 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물론 누가 노래를 시킨 적은 없었다. 국회실무수습은 전국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에서 총 54명이 참석하여 그 어느 실습기관보다 다양한 인적 구성을 자랑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같은 대학원생들만 소수 배정되어 실무수습이 안겨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인 서로 다른 로스쿨생들간의 문화적, 학업적 교류가 결여되어 아쉬운데 비해 국회는 수용인원과 그 구성면에서 매우 뛰어났다. 후에 듣기로 사법연수원 교육프로그램등에 참여할 때에도 국회에서 만난 학생들은 따로 모여 독서토론회(?)같은 것을 했다고 하니 이 또한 국회라는 곳이 우리에게 준 작은 선물이 아닐까 한다.

자기소개와 과정안내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공포의 하루 8시간 뻘뻘한 집중강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만 해도 일주일내내 영당이 뿔 시간없이 공부해야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첫 강의는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강의였다. 그리고 이어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직과 기능에 관해 각 부서의 기획관리관계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다. 첫 날은 국회 각 부처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가 주를 이뤘는데 오후에는 특별히 권오을 현 국회사무총장님의 특강이 있었다. 같이 로스쿨을 다니는 동기들뿐만 아니라 오전에 있었던 자기소개시간에 자신의 꿈이 국회의원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기에 선배 정치가라서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여쭙어 보았는데 정치가에게 꿈을 묻는 것은 실례라고 대답하셨다. 당연하다. 우문현답이었다.

이튿날부터는 강의의 연속이었다. 입법과정론,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법률안 심사사례, 행정입법 통제와 이론과 실제, 예산안 및 기금 심사과정등.. 학기 중 강의보다도 힘든 일정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강의를 소화했는지 스스로 대견스럽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분들과 기획관리관분들의 주옥같은 강의내용들, 실무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지식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분명 열심히, 집중해서, 필기도 해가면서, 줄리면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까지 해가며 들었건만 다시 보니 모두 새로운 내용들이었만 같다. 부디 내 머

릿속 어딘가에, 아니면 내 가슴 속 깊은 곳 어딘가에는 입법과 국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밀거름이 되어 녹아들었기를 기도해본다.

국회에서의 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주입식(?) 강의로 채워져 있어 마치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강의 내용들은 법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치 세상의 비밀을 한 꺼풀 벗겨내어 몰래 그 안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랄까? 포획범안이니 국회의 재정통제권이니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배워서 암기하고 있던 조세법률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에 있다는 등의 얘기는 부끄럽게도 이 분야에 무지했던 나에게도 일응 수긍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매 시간 질의 응답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이나 국회근무의 장, 단점 등에 관해 기탄없이 말씀해주셨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힘든 수요일 마지막 시간에는 문화강좌로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준비해서 무더위와 강의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구제해 주기도 하였다. 삼일정도 지나자 같이 온 학생들 간에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 강의가 끝난 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주소록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갖고 현재는 국회실무수습학생들만의 카페도 만들어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IV. 국회를 경험하다(국회실무수습 2주차)

1주차에 국회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2주차에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부서로 본격적인 실무수습을 나갔다. 국회에서는 각자 지원서에 1지망 2지망 희망지를 적어 제출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균등하게 위원회와 부서를 배정해 주었는데 나의 경우 신청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의 인기가 과열되어 아쉽게도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다. 그런데 전화 위복이라고, 정말 운이 좋게도 당시 국가적으로 핫이슈였던 경찰청장후보 청문회를 참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회건과 관련하여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에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우리 3인은 자의반 타의반 종일 청문회장에 방치(?)되어 버리긴 했지만 덕분에 TV로는 느낄 수 없었던 실제 청문회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를 여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그 긴장된 분위기와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들의 논리들은 여타 위원회 실습을 한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위원회에 배정된 친구들은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둘째 날 또한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삼엄한 경계태세의 그 곳에서 우리는 실무수습생의 신분으로 참관할 수 기회를 얻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의 적합성을 타진해보는 자리는 동시에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일생을 되짚어 보는 자리와도 같았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다. 함께 참관한 수습생들과 청문회와 관련된 의견을 나뉘어보고 비판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 동기 중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그 삶에 대해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의 청문회의 경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래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셋째, 넷째날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배정되어 실제 의원들의 입안 의뢰서를 가지고 조를 짜서 토의하고 법안을 제·개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고 다시 모이니 새삼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국회에 온 학생들은 정치뿐 아니라 국회사무와 입법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법제실에 온 학생들 모두 입안 의뢰서에 걸맞는 입안을 내기위한 열의가 대단해서 자료조사를 비롯해 실제 법제실 내부에서 의원분들에게 답변하는 수준의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 오기도 하였다. 심지어 수습을 주관하시던 법제과장님께서도 당장 법제실에 입사하여 근무해도 되겠다는 극찬을 하시기도 했는데 같은 로스쿨생으로써 대단히 자랑스러웠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 등지에서 로스쿨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지대하고 또 우리들을 본인들이 찾는 인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다양한 전공에 사회경험을 더하고 거기다 법적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로스쿨생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이 되어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날 수습중에는 YTN 정치부 기자가 된 대학 후배를 졸업 후 몇 년 만에 만나기도 했다. 소식은 듣고 있어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었는데 열심히 취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비록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자기 자리를 구축해가는 후배가 자랑스러웠다. 나도 지금은 공부를 하는 학생의 신분이지만 학업을 마치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뿌듯함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청문회 및 공청회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대화 있었다. 이제는 변호사시험 일정이니 합격률이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해서 로스쿨 관련 현안에 관해 법제사법위원장님께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상임위에 배정받은 학생들도 로스쿨 관련 건의서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 갔다고 하니 그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마침내 2주간의 일정이 끝나고 수료식 때에는 다같이 모여 전날 본회의장등을 참관하며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보았는데 어느 다정한 수습생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제1회 국회실무수습’이라는 글씨를 적은 예쁜 케익을 준비해 오기도 했다. 수료식이 끝나 헤어지는데 그새 다들 정이 들었는지 진행을 맡으신 선생님과 국회 앞 정원에 모여 나중에 꼭 다시보자는 얘기들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했다. 이렇게 사이가 돈독한 실무수습생들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난 나는 행운아이다.

## V. 나가며

누군가 국회실무수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것을 권유할 것이다. 그만큼 2주간의 실무수습은 나에게 애뜻하고 교육적이었다. 무엇보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비록 우리가 변호사시험을 보고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법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을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2주간의 경험은 짧다면 짧은 기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경험’과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험하고 느꼈다. 그 결과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나는 그 기간만큼의 삶을 그 곳에서 살아낸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바깥에서의 나의 시각이 내부에서 바라본 시각과 겹쳐지고 국회를 모르던 나의 삶에 대한 비전은 이제 국회를 염두에 두는 삶의 비전으로 바뀌었다. 이 실무수습기가 누구에게 임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전국 로스쿨생들 중 누군가가 혹은 미래에 내 후배가 될 누군가가 읽게 된다면, 앞으로 그 앞에 주어질 수많은 기회 중에 그 중 국회라는 곳도 한 번쯤 염두에 두어볼만한 곳임을 알려 주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지난주 금요일 3학년 1학기의 마지막수업을 마치고 이제 기말고사만을 앞 둔 시점이다. 끝을 앞 둔 모두는 두렵다. 어떤 끝이든 그러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끝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내년이면 나와 함께 로스쿨출신 대한민국 첫 법조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야 할 전국의 동지들에게 조금만 더 화이팅하자고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더 노력해서 알차게 자신을 채워나가라고 부족하나마 조언해주고 싶다.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의 책장에 가득 꽂혀있던 考試界. 그 전통있는 지면 한구석 어딘가에 미흡한 나의 글을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